



## 선박안전기술공단 제12대 민경태 이사장 취임

-중앙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 역임-



▲ 취임사를 연설중인 민경태 신임 이사장

제12대 민경태(57·閔庚泰)이사장의 취임식이 지난 5월 28일(수) 본부 12층 대회의실에서 본부 전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새로 취임한 민 이사장은 행정고시 23회 출신으로 1975년 한국해양대학교(기관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거쳐 영국 웨일즈대학에서 해운정책학 석사 과정을 마쳤으며, 1980년 해운항만청 행정사무관을 시작으로 28년 동안 해운항만 분야의 외길을 걸어온 전문관료로서 해운항만청 재무관리관실, 해양수산부 기획관리관실 법무담당관, 중국 북경 주재 한국대사관

1등 서기관,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장, 국립수산진흥원 연수부장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과 여수지방 해양수산청장을 거쳐 2007년 3월부터는 중앙대학교 초빙교수를 역임하였다.

한편, 민경태 이사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하여 공단의 위상과 역할 변화가 예상되는 시기인 만큼 전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공단을 계속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기술경쟁력 강화와 투명·윤리 경영 실천을 통하여 고객으로부터 인정받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있는 민경태 이사장



▲ 민경태 이사장 취임식에 참석한 본부 전임직원



## “김성규 이사장 이임식”가져



▲ 6년여의 임기를 마치고 이임하는 김성규 이사장

지난 5월 27일 14:00에 본부 12층 대회의실에서 전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김성규 이사장의 이임식을 가졌다.

김성규 이사장은 2002년 2월 27일부로 당시 선박검사기술협회 이사장으로 부임한 이래 6년 3개월간의 재임기간동안 고객 및 공단 임직원에게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중심의 경영, 능력과 성과위주의 조직문화 정착, 안정적인 운영재원 확보, 투명·윤리경영 실천 등 공단경영 전반에 걸쳐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경영실적평가를 비롯한 혁신수준진단, 외부

고객만족도조사 및 청렴도평가 등에서 계속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07년 4월 4일 역사적인 공단출범을 이끌어 냈으로써 공단의 위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킴과 동시에 제2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등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이날 이임식에서 김성규 이사장은 이임사를 통해 전임직원들에게 그 동안 일치단결하여 믿고 따라준 데 대하여 감사를 표하고, 다가오는 외부환경 변화에 잘 대응하여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동안 쌓은 역량을 바탕으로 화합하고 단결하여 줄 것과 새로 부임하는 이사장의 뜻을 잘 받들어 공단이 계속 발전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임광태 실장으로부터 재직기념패를 전달받고 있는 김성규 이사장



▲ 김성규 이사장 이임식에 참석한 본부 전임직원